

사고, 지식, 어휘의 교육적 함의

박 수 자 (부산교대)

< 차례 >

1. 도입
2. 어휘 연구와 의사소통능력
3. 개념, 지식과 정보, 어휘
4. 어휘 지도 방안
5. 맺음말

1. 도입

20세기 후반에 구성주의 패러다임이 부각되면서 지식관과 학습관에 커다란 변화가 시작되었다. 지식을 유용성(viability)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구성주의적 접근은, 전통적으로 학습의 대상이었던 지식에 대해 항존적 개념을 벗어나 ‘상대적 절대성’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언어교육에서도 의사소통능력의 개념과 맞물리면서 종전의 학문 중심의 교육과정을 탈피하여 학습자 중심의 언어교수법으로 변모하는 데 큰 일조를 하고 있다.

제5차 교육과정부터 국어과교육의 목표인 국어능력을,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¹⁾’으로 새롭게 해석하면서, 이에 따른 의

1) 의사소통능력의 개념이 언어교육으로서의 모어교육과 외국어교육에 도입될 때 그 적용 범위에 차이가 있다. 일정 수준에 도달한 모어화자에게 해당 모어를 지도할 경우와 학습대상어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는 상태인 외국인 화자를 지도할 때,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기대수준(학습도착점)이 동일하게

사소통적 언어교육 접근법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해당 연구들의 특징은 ‘언어 사용 목적의 현실성 추구, 학습자 중심의 동기 부여와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 강조, 현장감 있는 학습상황의 설계, 언어 학습 자료의 실제성(authenticity) 고려, 언어 사용(언어적 소통)의 적절성과 효율성 부각’ 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사소통적 접근에서 모어지도를 하는 국어과교육은, 언어의 본질상 학습자의 언어적 사고력(verbal thought)에 깊숙히 관여하게 되는 만큼, 달라진 지식관을 토대로 언어적 사고력의 질과 양적인 측면을 고무시킬 수 있는 ‘지식의 유형’과 그 ‘지도 방안’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 때 지식이나 사고(언어적 사고력)의 기본단위를 어휘로 보고, 어휘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 주목한다.

따라서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 신장, 궁극적으로 언어적 사고력의 신장을 목표로 하는 경우 해당 학습의 기본 단위가 되는 어휘의 본질에 대해 언어교육의 관점에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²⁾ 최근에 이루어진 어휘 연구의 추세를 검토하고, 어휘와 사고 및 지식과의 관계 논의를 통해, 의사소통능력 신장에 기여하는 어휘지도의 특성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2. 어휘 연구와 의사소통능력

현재 심리학에서 정보처리이론의 출현에 힘입어, 의미는 요소들간의 연상에서 연속적으로 생성되어 기억된다는 기억관에서, 특정 요소에 대한 ‘사실(facts)’의 축적 이상을 의미생성은 요구한다는 관점으로 전

설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모어교육으로서 국어과교육에서는 개인간 의사소통만이 아니라 개인내 의사소통 즉, 개별학습자의 언어적 사고력의 차원까지도 의사소통 개념을 확대적용하고 있다.

- 2) 언어교육은 해당 시점에서 추구하는 언어교육접근법(approach)에 따라 가르칠 내용에 대한 교수요목(syllabus)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교수학습방법(method)을 강구하여 해당 교재(material)에 담아내어야 한다.(권미정, 1991 참조)

환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어휘 연구도 변화하고 있다. 어휘를 통한 ‘정보 추론 및 조직’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1950년대에서 1960년대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1970년대와 1980년대에서는 지배적인 관점으로 부상하였다. 그래서 어휘연구는 어휘획득을 ‘개별 단어를 중심으로 개념간 관계, 개념의 조직, 지식의 확장 및 정제 등의 확립’을 포함하는 복잡한 하나의 과정으로 인정하고 있다.(Beck & McKeown, 1991)

이제 어휘를 안다는 것은 단어에 의해 지시된 대상의 핵심을 포착하기에 충분한 자질들을 나열하는 것이며, 개인 어휘는 나이와 경험에 따라 평생에 걸쳐 어휘의 양과 깊이 면에서 점진적으로 차별화되어 진행한다고 본다.

또한 어휘 연구의 흐름이 어휘 의미, 문장 의미 차원에서 나아가 어휘의 심리적 실체에 대한 본질 규명 쪽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언어학 분야만이 아니라 심리언어학, 인지심리학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연구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어휘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언어 형식만으로는 아니라, 독자의 사고 속에 지식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언어교육에서도 형식이 아닌 내용이 점차 중요시되면서 어휘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어휘사용능력이 곧 언어의 유창성이라고 강조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Luppescu & Day, 1993 ; Hell & Mahn, 1997: 이은경, 1997 재인용)

또한 Wilkins(1972)는 언어가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한다는 실용적 측면을 강조한다면, 문법보다는 어휘가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전보처럼 적절한 어휘를 알면 비록 문장이 비문법적이더라도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이은경, 1997 재인용)

그런데 문법학습의 경우 일정 기간 학습을 통해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이후 언어능력으로 안정적이 되지만, 어휘학습은 역동적이고 점진적이며 평생에 걸쳐 분화되고 정교화되기 때문에 외국어교육에서조차 어휘학습에 대한 기능이 기초(초급)단계에서부터 학습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찍이 Judd(1978)는 어휘를 하나의 기능(skill)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어휘가 독해나 문법을 도와주는 것이 아닌 새로운 하나의 영역으로 본 것이다. 또한 자연스러운 언어적 환경을 중시하면서, 어휘목록과 같은 고립된 단어의 습득은 장기적 보유가 어렵고, 학습자에게 충분히 문맥이 제공되어 의미 있도록 어휘가 습득되어야 기억 시간이 길어진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학습자들은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어휘들의 경우, 다의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쓰는 어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휘가 습득의 목표가 되어야 함을 주장했다.(이은경, 1997 재인용) 여기서 최근 언어학습에서, 학습자가 중심이 되고 의미가 있는 실제 상황에서의 활용이 강조되는 어휘학습의 특징을 볼 수 있다. 이는 어휘가 의사소통을 위한 전략적 자원임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3. 개념, 지식과 정보, 어휘

1) 어휘, 지식, 정보

어휘의 개념적 의미와 발화가 전달하는 내용, 둘다 인간의 두뇌에 저장되어 있다. 발화 의도시 화자가 가진 내용이 바로 정보이다. 개인마다 어휘의 사전적 지식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개인이 보유한 정보량은 크게 다르다. 개념적 의미가 모여 정보가 된다고 했는데, 정보의 구성소가 곧 단어의 개념적 의미는 아니다. 발화 내용은 단어의 개체 의미와 관계의 의미 결합, 그리고 언어사용자의 사고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정보이다. 단어의 의미는 객관적으로 존재할 수 있지만, 정보는 사실성의 유무³⁾와

3) 전통적인 지식관에서 보면, 사실성의 유무를 통해 인정된 지식의 속성을 객관성, 절대성, 항존성 개념으로 설명해 왔다. 최근 구성주의 지식관에서는 그러한 지식의 특징을 거부하고, 지식을 상대성, 유용성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식과 정보는 현재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개념의 지식이 주는 고정관념을 피하고 최근의 지식관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식이라는 용어보다는 정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한 것이 아

는 상관없이 화자와 청자의 사고에 의해 의미를 지닌다.

정보는 실제 세계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본질적으로 무의미한 사건에 대한 일종의 ‘대리자의 중요성 부여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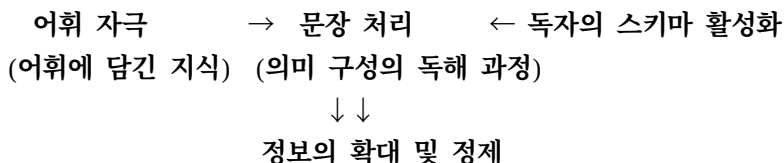
따라서 정보와 (개념적)의미는 당연히 구별되며, 정보는 바로 메시지에 해당한다. 여기에 ‘가치, 중요성, 진실성’ 등의 개념이 관여하여 맥락의 다양성 속에서 사용된다. 보통 언어기호에 포함된 정보는 언어기호 자체의 관습적 의미를 초과하지만, 이는 곧바로 독자의 스키마에 의존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실제로는 일단 언어기호의 관습적 의미에 의존하여 그 의미를 수행함으로써 정보를 교환한다는 말이다. 그리하여 정보는 일종의 의미적 생각(semantic idea)을 토대로, 의사소통의 상황 속에서 언어사용자에 의해 생성될 때 생명력을 지니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단어 인식과 문장 처리 과정은 다르다.⁴⁾ 단어 인식은 병렬적 체계이고 지각 과정을 거치면서 무의식적이고 자동적 상태이다. 비교적 고정된 개념을 기억하며 고도로 자동적이라는 말이다. 순간적이지만 모든 정보를 거의 동시에 이용한 후 그 의미를 결정한다. 반면 문장 처리는 구성적이고 일종의 계산 과정과도 유사하다.(van Dijk & W.Kinch, 1983)

그렇다면 어휘지도는 개별 단어의 개념적 정의뿐만이 아니라, 문장 처리 과정에서 확정되는 단어의 문맥적 의미와, 그 의미들이 계산(구성)되어 문장 의미로의 ‘의도적 전환 과정’에 대한 부분까지도 포함해야 한다. 결국 어휘의 특정한 문맥적 의미를 확정하는 과정인 문장 의미 처리를 통해 언어사용자는 정보라는 것을 생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어휘지도는 독해지도와 연속선 상에 놓이게 된다.

닌가 한다.

- 4)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생각그물은 거의 단어 중심으로 수행하게 되어있다. 학습자의 연상에 의해 학습자 자신의 스키마에서 끌어낸 단어들을 나열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열된 단어들이 모두 문장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리된 단어들이 문장으로 묶여 전환되는 의도적 과정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지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표1. 어휘와 문장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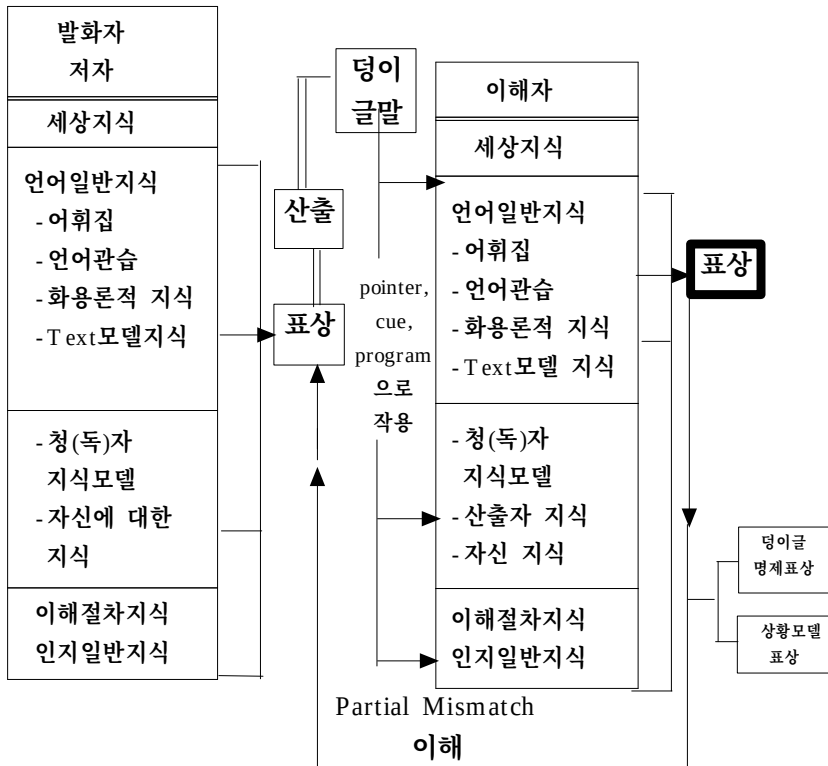
2) 어휘, 이해, 스키마

이해는 화자의 의도를 짐작하고 청자 자신의 어떤 상정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때(김태호·이현호 역, 1993), 청자는 화자의 의도를 화자가 사용한 발화를 통해 연역적 추론을 한다고 가정한다. 이 때 전제가 되는 것은 언어의 특히 어휘의 의미이며, 청자의 스키마, 그리고 그 둘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의미가 있다.

부연하면 인간의 사고과정은 일련의 연역과정이며, 그 속에는 개념적으로 저장되는 정보의 유형이 있는데, 바로 해당연역규칙, 백과사전적 지식(스키마, 프레임, 원형, 스크립트), 그리고 어휘이다. 독해는 결국 정보의 구성 과정에 의한 맥락의 확장으로 볼 수 있다. 청자가 발화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발화 의미, 함축 의미, 백과사전적 지식, 그리고 그것들의 확장’이 필요하다. 그 과정의 기본적인 자극으로서 언어 단위는 어휘일 수밖에 없다. 다음에 소개된 이해의 상호작용모델을 참고할 수 있다.(이정모·이재호, 1997)

<표2. 이해의 상호작용 모델>

현실의 사회-문화적 맥락 내에서



이해지도를 목적으로 하는 읽기 지도에서 일반적으로 어휘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하면,

가. 독자적 이해 및 회상

- 단어의 표면적 의미 파악 : 단어의 뜻 재인 및 회상
- 주요 아이디어 재인 및 회상 :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핵심어, 문

단의 중심내용(중심문장), 글의 주제 파악

나. 추론

- a. 단어의 의미 추론 : 뜻풀이, 어법상 적절성, 가장 중요한 말로 표현한 것 등
- b. 주요 아이디어 추론 : 제목, 중심내용, 주제

이처럼 독해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기능이 바로 어휘력이기에, 언어적 의사소통능력에서 어휘력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가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러 실증적 연구를 통해 그 가정은 검증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다. 실제로 어휘의 기능에 대해 읽기연구 분야에서 크게 세 가지 가설이 제안되었다.

첫째, 도구가설(instrumental hypothesis)은 개별어휘의미에 대한 지식이 독해에 일차적으로 관여하는 요소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더 많은 어휘를 알면 알수록 학습자의 독해는 증진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어휘를 많이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둘째, 언어적성가설(language aptitude hypothesis)은 어휘력과 사고능력을 별개로 보기에, 어휘지도가 학습자의 사고력이나 언어능력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본다. 셋째, 지식가설(knowledge hypothesis)은 단어 의미에 대한 지식은 다른 단어의 지식과 서로 연결되어 생각의 망을 형성하고 있으리라고 본다. 따라서 어휘지도는 학습자의 선행경험과 결부시키고 단어들간의 관계를 지어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상의 가설은 여러 방면에서 실증적인 연구로 그 타당성이 검증되고 있지만, 확실한 것은 이중 어느 가설도 다른 가설들을 배제하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이중 지식가설은 읽기지도에서 스키마이론의 각광에 힘입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선행지식이나 사전지식은 배경지식(background knowledge)이며, 그러한 배경지식의 구조를 스키마라고 한다. Carrell(1983)은 독자가 가진 배경지식이 독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배경지식은 '(가) 해당 텍스트 문맥에 대한 선행지식, (나) 해당 텍스트 문맥 내에서 텍스트 내용

에 관한 선행지식, (다) 해당 텍스트 문맥에 나타난 어휘항목의 정도'의 세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배경지식을 가르치는 중요한 부분은 어휘를 배경지식과 관련시켜 가르치는 것이고, 반대로 어휘를 가르치는 것은 새로운 개념과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된다. 따라서 교사가 어휘 의미가 언어사용에서 어떻게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지를 알고, 단어의 의미를 사전 지도하는 것이 학습자의 읽기능력 향상에 중요하다.(Carrell, 1983, 1988: 조영범, 1997 참조)

어휘 사용의 다양한 용례가 제시된 자원이 텍스트이기 때문에, 독해 지도에서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추론하게 하여 독해의 정교성을 증진시키고 적절한 어휘의 선택과 그 개념의 폭넓은 이해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구어와는 달리 눈으로 읽는 것이기에, 글의 내용과 어휘 수준을 학습자의 현실적 수준 이상으로 구성하여도 된다. 어떤 경우에는 시사잡지나 신문, 현대소설(베스트셀러) 등이 학습동기 유발에 더 효과적으로 보인다.

결국 읽기란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언어적 요소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며, 텍스트 자체가 텍스트 밖의 다른 요인들과 상호작용하는 역동적 과정(Nunan, 1991)이라면 당연히 그 과정의 단위는 어휘(개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독해지도는 어휘지도를 전제로 한다.

4. 어휘지도 방안

1) 어휘 지도의 방향

어휘력⁵⁾이란 어휘에 대해 아는 능력이며, 많이 알고 깊이 알면 어휘

5) Richards(1976)는 어휘력(lexical competence)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여덟 가지로 설명을 제시하였다.(이은경, 1997, 재인용)

1. 모어화자는 성인이 되어서도 그들의 어휘를 계속 확장한다.
2. 하나의 단어를 안다는 것은 그 단어를 마주칠 가능성의 정도와 그 단어와 함께 나올 단어의 종류를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하나의 단어를 안다는 것은 기능(function)과 상황(situation)에 있어 그

력을 높이 평가하게 된다. 보통 어휘지도는 모르는 단어의 뜻을 알게 해 주는 것으로 보고, 학습자의 어휘보유량을 늘여주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정규 수업시간 이외의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어휘 지도할 기회는 거의 없기 때문에, 어휘지도에 대한 양적인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어휘력을 주로 어휘량 측정을 통해 가늠하는 평가연구가 많이 되었지만, 최근에는 단어지식을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지식의 정도’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주장(Beck & McKeown, 1991)이 제기되면서, 선다형식의 어휘력 측정보다는 질적인 측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일찍이 Dale(1965)은 ‘1단계 : 전에 결코 본 적이 없다, 2단계 : 들어봤지만, 그 의미는 모른다, 3단계: 문맥 속에서 관련되는 것으로 인식이 가능하다, 4단계 : 매우 잘 안다’ 등의 4단계 측정법을 제시하였다. 또 단어 지식에 연속체 개념을 도입하여 ‘전혀 모른다 → 상식적으로 보아 부정적인 뉘앙스 정도는 감지한다 → 조금이지만 문맥적 지식이 있다 → 알지만 재빨리 알아채지는 못 한다 → 탈문맥적 상황에서도 단어의 의미를 알고, 다른 단어와의 관련성도 알고 있으며 심지어 은유적 용법까지도 잘 안다’ 등의 평정법도 제안된 바 있다.(Beck, McKeown, & Omanson, 1987; Beck, Perfetti, & McKeown, 1982; Beck & McKeown, 1991 재인용)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영어처럼 ‘vocabulary 22000’, ‘vocabulary 55000’ 등과 같은 어휘목록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현 실정

단어가 사용될 수 있는 한계를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하나의 단어를 안다는 것은 그 단어의 구문적 행동(syntactic behaviour)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
5. 하나의 단어를 안다는 것은 그 단어의 기본적인 형태(underlying form)와 파생어(derivations)를 아는 것을 의미한다.
6. 하나의 단어를 안다는 것은 다른 단어와의 관계망(network)에서 그 단어의 위치를 아는 것을 의미한다.
7. 하나의 단어를 안다는 것은 그 단어의 어의적 의미(semantic value)를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8. 하나의 단어를 안다는 것은 그 단어의 다른 의미를 아는 것을 의미한다.

에서 독립적인 개별학습으로 어휘학습이 진행되게 하려면 어휘학습 방법을 지도하고 독서관장을 통해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어휘량을 늘이는 방향으로 안내해야 한다. 단, 읽는 동안 문맥상에서 어휘학습을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 폭넓은 독서가 자칫 빈익빈부익부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어휘지도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게 함과 동시에 해당 단어의 의미관계까지 학습하게 해야 한다. 가령 에스키모의 ‘눈’과 우리의 ‘눈’에는 개념적으로 깊이의 차이가 있고, 이것은 당연히 독해/청해의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의미분석적 접근이나 어휘장, 단어의 의미 관계에 기초한 어휘지도가 여기에 해당된다. 양적인 접근이 가지는 한계를 고려한다면, 정규수업시간에서 어휘지도는 주로 질적인 접근에 초점을 두게 되는데, 질적인 접근은 어휘량에 많은 제약이 따르므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현실적으로 어휘지도는 ‘읽기전 어휘지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휘지도에만 집중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이상에서 본 두 가지 접근법 모두 현재 국어교과서상에서는 독립적인 어휘지도로 도입되어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 현재 어휘지도는 ‘읽기전 어휘지도’로서, 텍스트에 출현한 낱선 개별 단어의 뜻을 가르쳐주는 선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언어수업시간에 어휘지도 수업분량을 늘여서 해당 학습장면에서 제시된 어휘를 정확하게 기본적 의미와 문맥적 의미까지 파악할 수 있게 할 것과, 학습자의 연령과 경험의 확장에 기여하고 그 수준에 맞게 어휘의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실제 텍스트를 사용하도록 하며, 어휘력의 질적 고양을 위해 표현력과 결부시켜 지도하는 총체적 언어학습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이때 어휘학습의 일차 자원은 문맥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문맥이 단어이해에 방해가 되거나 의미 추출에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으므로 효율적인 사전 사용법⁶⁾ 안 내도 병행되어야 한다.

6) 사전 사용을 안내할 때, 자모의 순서에 대한 인식, 표제어 처리 문제(동음이의어, 다의어), 단어의 짜임, 용언의 기본형 등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다.

2) 언어기능과 간접어휘지도

어휘는 구어나 문어지도 모두에 기본적으로 관여되지만, 실제로 말하기/듣기 지도에서는 개별 단어(뜻) 자체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단어의 정확한 발음/청음, 말하기 듣기의 절차와 전략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그렇다보니 구어지도에서 어휘지도의 수준 및 분량은 문어지도에 비해 매우 심각한 제약을 받는 상황이다. 구어는 그 언어본질상 상황의 존성이 강하고, 비언어적 기호(표정, 제스처 등)를 많이 사용한다. 특히 한국어의 경우는 음성상징이 발달하여 청각에 많이 의존하므로, 그牛羊스를 살려야 한다.⁷⁾

또 정보중심인 문어적 의사소통과는 달리 주로 친교적인 구어적 의사소통에서 어휘의 사용은 부수적인 기능이 수반된다. 대면상황에서 어떤 단어를 구사하느냐가 해당 언어사용자의 사회적 지위나 교육정도를 즉각적으로 가늠하게 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어지도 시에는 즉각적인 단어 선택의 상황적 적절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의사소통의 경제성(효율성)도 고려한 비언어적 기호의 사용도 권장된다. 완성된 정확한 문법적 표현보다는 들리는 단어에 주목하여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보통 어휘를 가르칠 때 ‘시범’을 보이거나, ‘그림이나 사진’ 등을 대신 보여주거나, 혹은 언어적인 설명을 해준다. Gu & Johnson(1996)은 어

7) 이정희(1997)는 한국어 어휘의 일반적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으나, 좀더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

1. 음절구조 면에서 다음절어가 많다.
2.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어휘보다 생활어, 감각어, 색채어가 많다.
3. 대우체계를 가지며 경어와 평어의 차이의 사회성을 가지고 있다.
4. 동의어와 유의어가 많다.
5. 음운교체로 어의상 어감의 차이가 발달하였다.
6. 체언이 격에 따라 형식이 달라지지 않는다.
7. 용언이 지극히 발달하여 있으며 파생과 합성을 통해 다량의 어휘를 가진다.
8. 부정법과 피동법 등은 어휘론적 차원에서 다루어진다.
9. 국어의 ‘一對多對應현상’이 있다.

회합습책략으로 ‘추측전략(guessing strategy), 사전전략(dictionary strategy), 공책필기전략(note-taking strategy), 반복합습전략(rehearsal strategy), 기호화전략(encoding strategy)’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탈문맥 상황에서 독립적으로 단어를 학습하는 경우에는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암기하는 방법을 선호하게 되나 사실 오래가지 못한다. 특히 고 급수준으로 가면 갈수록 어휘가 담는 개념도 복잡해지므로, 결국 글의 독해가 장애에 직면한다. 몇 번을 읽어도 글의 주제나 속뜻이 머리 속에 잘 정리되지 않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단지 해당 단어의 의미를 피상적 수준에서 일 대일로 번역하는 차원이 아니라, 글 속에서 단어지식을 활용하여 추론 하게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또 학습 텍스트는 모어화자들이 자신들의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한 실제 텍스트를 도입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 시켜야 한다.

한편 김광해(1988)는 어휘를 일차어휘와 이차어휘로 구분하고, 학습 기본어휘에는 두 가지 모두 해당될 수 있는데, 이차어휘들은 고등교육 에서 추구하는 바 지식의 확대 문제에 직결되는 어휘로서, 지적 기본어 휘에 해당하는 어휘이므로 이들 이차어휘 중심으로 어휘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이영숙, 1995 재인용)

모어교육에서는 외국어교육과는 달리 이차어휘의 선정과 지도가 매 우 중요한데, 그러한 어휘지도는 특정 텍스트의 독해지도와 결합될 수 밖에 없다. 생산적인 어휘지도 방법은 결국 언어기능학습과 결부되어 문맥 속에서 특정한 의미 실현을 파악하게 하는 것에 있다. 이것이 기존 의 문맥접근법과 구별되는 차이점은, ‘실제 텍스트’를 사용하고, 텍스트 를 독해하는 언어 활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어휘학습이 이루어지게 한 다는 점이다.

3) 어휘지도의 실제

언어교육에서 다루는 어휘는 특정 개념을 담아내는 기호로서 개념

자체와 유리될 수 없다. 그 개념은 학습자의 사고나 경험과 유관하며 의사소통은 언어가 오고가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가 오고가는 것이어서 결국에는 개인 간의 생각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의사소통에서 언어기호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비언어적 기호, 즉 제스처나 표정의 역할이 주효하며, 한편으로 미술적 의사소통이나 음악적 의사소통의 양상과 비교해 보면, ‘언어의 개념화와 개념의 언어화’에 주목하고 그 과정의 모의훈련이 어휘지도의 내용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또 언어와 개념 간의 역동성을 고려하여 사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적절한 어휘 선택을 통해 미묘하고 민감한 생각과 감정의 편린을 포착하여 전달할 수 있을 때, 고급 수준의 언어사용이 가능해진다. 그렇게 모여 사용에 대한 언어감각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 어휘는 지식의 단위로서 해당 문화의 보고이다. 적절한 어휘의 선택은 언어감각중 특히 문화적 감각을 반영하는 것이다. 개별적으로는 언어적 사고력의 폭과 깊이를 확장시키고, 동시에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문화적 인간을 길러낼 수 있다.

이처럼 어휘학습은 사실 지각(recognition)보다는 의미(meaning)에 더 초점을 둔다.(Harmon, 1998) 아동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아는 개념에 대해 새로운 단어를 배우게 되고, 새로운 개념의 새로운 단어를 배운다. 어휘가 풍부하다는 것은 중·고등 학교에서 학습을 수행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국어과교육의 어휘지도는, 독립적인 어휘학습전략을 지도하여 절차적 지식을 배우게 하고, 특정 단어의 의미를 강조하여 명제적 지식을 늘이며, 새 단어 학습에 대한 인식과 평가감각을 계발하여 조 건적 지식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⁸⁾

가령, 학급 내에서 독서토의를 통해 어휘지도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접근법은 ‘(세상)지식을 확장하는 일화(에피소드) 지도가 가능하며, 학급 내에서 사회적 상호작용과 중재도 가능하고, 폭넓은 도서 소개가

8) Harmon(1998)이 Paris, Lipson, & Wixon(1994)의 내용을 인용한 부분을 참고하였다.

이루어질' 수 있다. 학생들이 글 내용에 대해 충분히 집단 토의를 하게 된다면, 그러한 협동과정에서 서로의 반응을 검색하고 낯선 단어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며 특정 단어의 지도를 위한 교사의 개입이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만들어준다. 아울러 집단구성원들이 단어 의미 생성을 위해 토의하는 것은 비판적 읽기와 문제해결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읽기전 단어 지식의 강조와 곧이어 쓰기과제에서 사용하게 하는 총체적 언어학습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혼자하는 독립적인 독서에도 전이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학작품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학생들의 반응 유도를 통해 새단어의 지각과 음미력을 개발하고 실제로 사용하도록 해 줄 수도 있다. 이러한 어휘학습은 문식성 체험(혹은 발달)에서 매우 중요하다.

<유형1 직접 어휘 지도의 단계와 전략>

짧은 글

- 1단계 : 의역하기 - 학습자로 하여금 자기가 아는 말로 다시 풀어 쓰게 하기
- 2단계 : 사전찾기 - 혹시 애매하거나 잘 모르는 단어를 보면 사전을 일단 찾기
- 3단계 : 대체하기 - 단어의 뜻을 알고 나면, 의미 관계에 비추어 다른 단어로 바꾸어 보기
- 4단계 : 변용하기 - 단어 의미의 영상성을 고려하여 시각화해 보기⁹⁾

9) 이것은 Pavio의 dual-coding mode에 근거한 것이다. 그는 단어학습에서 영상성이 제공되면 단어습득이 용이하다고 하였다.(이화자, 1996)

<유형2. 간접 어휘지도의 단계와 전략>

1단계 : 연상하기 - 텍스트를 한번 훑어보고, 잘 모르는 단어 골라내기, 단어 뜻을 안 다음 의미지도(semantic mapping) 그리기, 제목을 보고 내용 추측하기

2단계 : 이해하기 - ① 텍스트에 나타난 단어를 알고 있는 다른 단어로 바꾸어 넣기, 문맥을 유추하여 괄호 안에 단어 넣기, 문장을 다른 문장으로 바꾸어 보기
② 텍스트 내에서 관련 단어들로 의미망(network)을 만들어 보기
③ 단어 개념에 대한 조별토의를 거쳐 글 내용 구성하기/이해하기

3단계 : 일반화하기 - 사전이용하여 단어의 뜻 정확하게 정의하기, 텍스트 내용(주제, 중심내용)을 요약하기, 텍스트 읽은 소감에 대해 짧은글짓기

< 사례 1-수필 >

‘방정환’의 ‘어린이 찬미’와 같이 하나의 문학작품은 담화의 연속체로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관용적 용법과 언어사용법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주며, 언어적 맥락상 응집성(coherence)이 있고, 특히 문화적인 다양한 안목이 포함되어 있다.

어린이가 잠을 잔다. 내 무릎 앞에 편안히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다. 별 좋은 첫여름 조용한 오후다. 고요하다는 고요한 것을 모두 모아서 그 중 고요한 것만을 골라 가진 것이 어린이의 자는 얼굴이다. 평화라는 평화 중에 그 중 훌륭한 평화만을 골라 가진 것이 어린이의 자는 얼굴이다. 아니 그래도 나는 이 고요한, 자는 얼굴을 잘 말하지 못 하였다. 이 세상의 고요하다는 고요한 것은 모두 이 얼굴에서 우러나는 것 같고, 이 세상의 평화라는 평화는 모두 이 얼굴에서 우러나는 듯 싶게 어린이의 잠자는 얼굴은 고요하고 평화스럽다.

1단계 : 의미지도 그리기

2단계 : 텍스트 내 관련 단어들로 의미망 만들기

(고운) 나비의 날개, (비단) 같은 꽃잎, 아니 아니, 이 세상에 곱고 보드럽다는 아무것으로도 (형용할) 수가 없이 보드랍고 고운, 이 자는 얼굴을 들여다 보라. 그 서늘한 두 눈을 가볍게 감고 이렇게 귀를 (귀울여야) 들릴 만치 가늘게 코를 골면서 편안히 잠자는 이 좋은 얼굴을 들여다 보라. 우리가 종래에 생각해 오던 하느님의 얼굴을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

어느 구석에 먼지만큼이나 (더러운) 티가 있느냐? 어느 곳에 우리가 싫어할 한 가지 반 가지가 있느냐? 죄 많은 세상에 나서 죄를 모르고, 부처보다도 예수보다도 (하늘) 뜻 그대로 산 하느님이 아니고 무엇이랴! (하락)

2단계 : 문맥을 유추하여 괄호 안에 단어 넣기/글 내용 이해하기

3단계 : 텍스트 읽은 소감에 대해 짧은글짓기

→ (어휘 학습의 효과) 개별 단어를 중심으로 개념간 관계, 개념의 조직

<사례2- 신문기사>

1998년 12월 2일자 한국일보에 실린 다음 기사는, 아동들이 쉽게 흥미를 느끼면서 이해가 가능한 내용이기에 어휘 학습 자료로 적당하다고 본다. 실제 자료로서 사회적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서,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담화의 연속체이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주며, 더불어 새로운 어휘를 학습할 수 있다.

‘하이테크 고고학, 사라진 세계 잇단 발굴’

세계 고고학계가 하이테크로 수천년 전의 「사라진 세계」를 잇따라 발굴하는 개가를 올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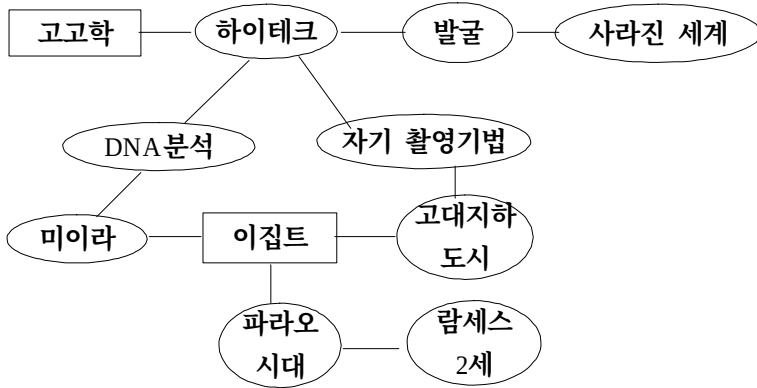
이집트 천문가들은 30일 나일강 델타 지역의 샤르키야주에서 자기 촬영기법으로 이집트 파라오 시대의 「정복왕」 람세스 2세 시대의 고대 지하도시를 발견했다. 이 기법은 땅 속의 전기저항과 자력을 측정하는 자력계를 이용해 지하물체의 사진을 찍어 탐사하는 기술. 칸티르의 1km²에 이르는 옥수수밭과 밀밭 지하에서 사원과 농사용 관정, 공장과 마굿간 등 완벽한 도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

또 인간의 유전정보를 담고 있는 염색체를 구성하는 요소인 DNA(디옥시리보핵산) 분석도 새로운 방법. 일명 DNA고고학으로 불리는 이 방식은 미이라의 유골에서 DNA를 추출해 분석한다. 민족이나 문화의 기원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것과 판판으로 밝혀질 수도 있다.

1단계 : 텍스트를 한번 훑어보고, 잘 모르는 단어 골라내기, 제목을 보고 내용 추측하기

2단계 : 텍스트 내에서 관련 단어들로 의미망(network)을 만들어 보기/글 내용 이해하기

<표3. 텍스트 내 단어들의 의미망>



3단계 : 사전을 이용하여 단어의 뜻 정확하게 정의하기

→(어휘 학습의 효과) 지식의 확장 및 정제(어휘를 통한 정보의 추론 및 조직)

5. 맺음말

구성주의 패러다임의 확산에 따라 국어과교육에서도 학습대상(내용)으로 삼는 여러 가지 자원들에 대해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어떤 지식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하는 문제에 대해, 본고는 사고의 자원이자 지식의 단위이며 언어의 단위인 ‘어휘’에 주목하고, 어휘의 본질과 어휘지도의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현재 어휘지도방법에 대한 연구는 많이 소개되고 있다. 문제는 그렇게 연구된 방법론들이 실제로 교육현장에서는 별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언어교육에서 차지하는 어휘 지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어휘의 양은 많고 체계적인 어휘목록은 연구된 바 없으니, 제대

로 된 어휘 지도를 하고자 하는 학습내용은 마련될 수 없었다.

한편으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영화나 소설을 접하면서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어휘력을 확장할 수 있고, 당대의 문화적 감각을 기를 수 있다. 또 신문이나 시사잡지를 통해 사회의 최신 정보를 얻어 실제 학습자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 이처럼 수업 시간 이외에서도 얼마든지 어휘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휘지도는 또 소홀히 여겨지기도 하였다.

그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학습자의 현재 생활과 결부될 수 있는 학습 자료와 그에 따른 어휘 지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최신 어휘 학습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어휘 학습 단원이 읽기 단원 내에 따로 특별히 마련되어야 한다.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 증진을 위한 어휘 지도는, 국어교과서에 나타난 낯선 단어 혹은 애매한 단어의 뜻을 탈문맥적으로 단순히 가르쳐 주거나, 사전 찾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소극적인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사회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텍스트(신문, 잡지, 만화, 교양서적 등)를 도입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어휘를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어휘 조작을 해 봄으로써 ‘정보의 추론과 조직’, ‘단어의 관계나 개념의 조직’ 등을 학습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독해지도나 표현지도와 병행하면서 말이다. 그렇게 해야 학습자의 어휘량의 확대는 물론 어휘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강진구(1996), “어휘 및 문장구조가 영문 독해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 석사논문.
- 권미정(199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재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 김성민(1993), “영어 어휘 의미 및 지도 방안”, 고려대 석사논문.
- 김홍림(1995), “문학텍스트를 활용한 영어학습지도 연구”, 숙명여대 석사논문.
- 김태호·이현호 역(1991), 『담화 텍스트언어학 입문』, 양영각.
- 박병선(1997), “한국어 구어의 어휘 사용 특징-코퍼스를 이용한 분석”, 고려대 석사논문.
- 박수자(1994), 『독해와 읽기 지도』, 국학자료원.
- 박종호(1996), “문화와 어휘 인식 부족에 따른 의사소통의 문제점”, 영어교육 51권 4호겨울, 한국영어교육학회.
- 신명신(1996), “영어 기본어휘 목록 제안”, 영어교육 51권 4호 겨울, 한국영어교육학회.
- 오미향(1993), “어휘 의미 지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 이연수(1994), “어휘, 문법 지식과 독해의 상관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 이영숙(1995), “국어과 지도대상 어휘의 선정 원리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 이영자(1997), “어휘학습책략 비교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 이은경(1997), “효과적인 영어 어휘 지도 방법 연구”, 한남대 석사논문.
- 이정모·이재호(1997), 『인지심리학의 제문제(II): 언어와 인지』, 학지사.
- 이정희(1997),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어휘교육에 관한 연구”, 경희대 석사논문.
- 이화자(1996), “중고등학생의 영어 어휘력 신장을 위한 효과적인 교수방법”, 영어교육 51권 2호 여름, 한국영어교육학회.
- 정인숙(1995), “독해력 향상을 위한 어휘지도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 조영범(1997), “독해력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어휘 지도 방안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 Anderson, R.C. & Freebody, P.(1985), “Vocabulary Knowledge”, in Theoretical Models & Processes of Reading, IRA.
- Beck, I. & McKeown, M.(1991), “Conditions of Vocabulary

- Acquisition”, in Handbook of Reading Research, vol II.
- van Dijk & Kinch, W.(1983), 『Strategies of Discourse Comprehension』, Academic Press, Inc.
- Johnston, F.R.(1998), "The Reader, the text, and the task : Learning words in first grade ", The Reading Teacher, IRA.
- Harmon, J.M.(1998), "Vocabulary teaching and learning in a seventh-grade literature-based classroom", Journal of Adolescent & Adult Literacy, vol 41 no.7, IRA.